

# GIST, 보직자 대상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실시

- GIST, 매년 구성원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통해 인권 친화적 캠퍼스 조성 노력
- 임기철 총장 비롯한 보직자들, 사례 중심 교육 통해 인권감수성 제고



▲ 천정아 변호사가 5월 29일(목) 오룡관에서 GIST 보직자를 대상으로 '성희롱·성폭력 관련 법률 및 사례 분석'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.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**지난 5월 29일(목) 오룡관에서 보직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**

이번 교육은 '성희롱·성폭력 관련 법률 및 사례 분석'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, 임기철 총장을 비롯해 정성호 연구부총장, 정용화 대외부총장 등 주요 보직자 10명이 참석했다.

이날 교육은 **법무법인 강남의 천정아 변호사가 진행했다.** 천 변호사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로서, **15년간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구조 활동을 수행해왔다.**

또한 인사혁신처, 교육부, 외교부, 경찰청 등 다수의 정부 부처에서 **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, 2021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.**

교육에서는 ▲성희롱과 성폭력의 구별 ▲관련 법률과 처리 절차 ▲피해자 지원 제도 ▲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등 실질적 사례 중심 내용이 다뤄졌다.

참석자들은 교육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 상황을 이해하고, 그 해결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. 특히 서로 존중하고,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.



▲ 임기철 총장을 비롯해 GIST 보직자가 '성희롱·성폭력 관련 법률 및 사례 분석' 강의를 듣고 있다.

임기철 총장은 "폭력예방 활동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, **서로 신뢰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GIST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**"고 말했다.

한편, 이번 교육은 **고위직(보직자)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법정 의무교육의 일환**으로 GIST 권익인권센터 주관 하에 진행됐다.

GIST는 2023년부터 매년 대상자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을 대면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, **인권 친화적이고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**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.